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 논의

한국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다음주 금융권 협회장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환을 늦춰준 각종 대출의 만기 재연장 여부 등을 논의
금융권에서는 대출 원금에 대한 만기는 최대 6개월 더 미뤄주되 이자는 금융회사 사정에 맞춰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

술돌린 대기업, 은행 대출 줄었지만… 중기는 더 빌렸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들이 하반기들어 자본시장 정상화로 은행 대출 줄여…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은행 대출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기본 체력이 강한 대기업들은 외부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

'사모'에 혼난후…공모펀드 눈돌리는 은행

매일경제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ELF 판매액은 9,924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4,196억원)에 비해 1년 만에 136.5% 늘어…
금융당국 규제로 막힌 주가연계신탁(ELT) 대신에 ELF로 눈길을 돌려 판매를 확대…사모펀드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은행들이 펀드 판매 무게 추를 공모펀드로 옮기는 모양새

'신한은행 판매' 아름드리펀드 240억원 전액 손실 가능성

연합인포맥스

신한은행은 최근 '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사모투자신탁 7호' 관련해 현지 보험사로부터 투자금 전액에 대해 지금 불가 판정을 통보받아…투자금 전액손실 가능성
지난해 5월 해당 사모펀드 7호와 9호를 판매…각각 240억원, 230억원 등 470억원 규모…판매할 때 편입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보험사가 최종 100% 보상한다고 고객에게 안내

“보험사 ‘1200%’를 시행 방안 마련 급하다”

한국보험신문

시행 5개월도 채 남지 않는 '1200% 률'…보험사, 여전히 미확정… GA마다 셈법 달라 대응책 고민…대형 GA 중심으로 자본력 키우기 위한 투자유치 본격화
"1200% 률이 대형 GA, 중소형 GA, 자본력이 있는 GA, 그렇지 못한 GA별로 파장이 다르게 나타날 것…자본력이 떨어지는 GA 소속 설계사가 자본력이 좋은 GA로 이동할 가능성"

폭우에 자보 손해율 다시 ‘비상’

파이낸셜뉴스

4대 손보사의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84.8~86.5%…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서 3.4~9.5%포인트 감소한 수치…누계 손해율은 83.3~84.5%
지난달 손보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피해 3,000건…손해액 335억원…태풍 장미 상륙 예상되고 장마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동차 침수피해에 따른 손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내달 月최대 1.7조 비우량 회사채 만기…저신용 SPV 효과보나

뉴스1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다음달 만기가 물린 비우량 등급 회사채 시장의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다만 여름 휴가 기간인 8월에는 회사채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를 맞는 만큼 발행 수요가 많지 않아…SPV가 제역할을 하는 시기는 만기 물량이 많은 9월부터가 될 전망

HDC현산, 금호산업 대면협상 수용… 재협상 불씨는 살렸다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종결을 위한 대면협상을 제안했던 금호산업의 요구에 사실상 응하면서 양측 간 만남 성사 여부와 협상 결과에 이목이 집중
아시아나 인수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에셋대우 측은 "현재 계약조건은 모두 동일하며 현산에 투자하는 차원으로 참여 중…인수 결정 역시 현산 의견에 따를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일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